

# 만가지 이야기로 그린 남도 풍류

행촌문화재단 9월 30일까지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만화방창'展

### 일지암·백련사·녹우당 등 해남·강진 명소 8곳서 전국 예술가 41명 남도 담은 작품 420여점 전시

남도는 예술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국의 예술가 41명이 '남도 문화'에 폭 빠져 들었다. 대흥사를 비롯한 천년고찰 등 남도의 '문화 원석'에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작품으로 담았다.

여름 휴가를 맞아 해남과 강진 곳곳의 유서깊은 문화 명소 8곳에서 전국 예술가들이 남도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은 전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30일까지 행촌종합병원과 행촌미술관(관원 내), 고산윤선도기념관(녹우당), 대흥사 성보박물관과 일지암, 미항사, 백련사, 이마도작업실(임하도)에서 동시에 '2015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풍류남도 만화방창(風流南道 萬話萬壽芳創)'전을 연다.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 임하도, 행촌미술관, 녹우당, 대흥사, 미항사, 백련사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작품을 만나면 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해남과 강진을 다녀간 전국 작가들이 다채롭게 제작한 작품 420여 점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남도 일원의 역사와 문화, 남도의 지형, 사람에 대해 취재하고 탐구하면서 사색하는 과정에서 남도 문화에 대한 깊은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해남과 강진 일원의 사찰 등 문화 명소를 둘러보고, 작가들이 전시 장소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해남종합병원과 행촌미술관에는 해남의 모든 것을 압축한 형식으로 제작한 박방영의 '해남의 길', 김억의 '이마도의 봄', 송필용의 '청매' 등 작품 수십 점이 전시된다.

또 행촌문화재단 소장작품으로 1991년 제강안태원이 제작한 '해남금곡실사'가 함께 전시된다. 이 작품은 24년 전 당시 논밭이 대부분인 해남읍의 전경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조각 작품과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영상 등이 소개된다.

고산윤선도기념관에는 고산 윤선도와 관계있는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전통 목판화기법으로 제작한 김억의 '도암마을 소식문' 등은 작가가 3년의 시간을 가지고 고산의 어부사시사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시각화하고자 시작한 연작의 일부다. 또 박방영은 고산의 시 '오우가'를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시각화했다.

작가들은 대흥사와 일지암도 작품에 담았다. 각각 대흥사 천불전의 부처와 대웅보전의 감로도의 도상과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은숙의 '전불+1', 하성훈의 '감로탕' 등 작품은 도량과 문화유산 보고서의 대흥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절집 미항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종구의 '미항사' 연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미항사'라는 수식어만큼이나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박방영의 '미항사'는 사찰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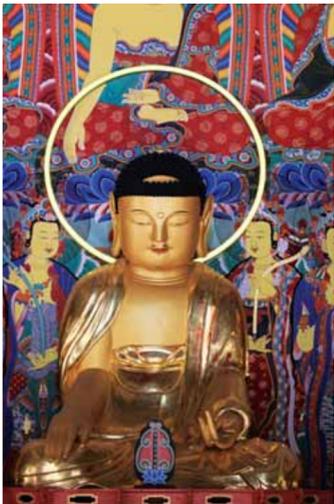
이종구 작 '미항사'

동백이 아름다운 백련사 대웅전과 명부전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김기라의 '광배(光背)'가 설치됐다. 광배는 대웅보전 불상과 명부전 불상에 LED 광배를 설치한 작품으로 불교적 도상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이수경의 설치 작품 '있다'는 백련사 대웅전에 자리 잡았다. 평범한 돌에 금박을 입힌 이 작품은 '모두가 부처'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마도작업실(임하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해 창작활동 중인 김범석, 신태수, 윤남웅, 정영일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기라 작 '광배(光背)'



김억 작 '꽃대궐 차리인 동네'

## 윤보숙 작가 '생명의 순환'展

13일까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윤보숙 서영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의 '생명의 순환'전이 오는 13일까지 파리에 있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윤 교수는 그동안 플라스틱, 스틸, 가죽, 유리, 아크릴, 비디오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선보여온 작가다. 특히 작품을 통해 정보의 범람,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파편화 되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성찰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18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인간의 본성과 근원적 감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테크놀로지적 요소에 인간의 감성을 덧입혀 생명이 부활하고 순환하는 세상을 설치, 영상, 회화 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홍익대 대학원을 나온 윤 교수는 한국 뿐 아니라 호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활동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

김정아 연주회...내일 나주 예가체프 안성현음악홀

피아노로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다. 그림 동화와 이야기도 곁들여져 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씨가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초청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를 진행한다. 8일 오후 7시30분 나주 예가체프 안성현음악홀.

연주 프로그램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로 임인수(광주대학교 출강)씨가 동화 그림을 함께 들려준다.

관현악 곡으로 작곡된 '피터와 늑대'는 주인공 피터가 할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숲에 갔다 늑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동물의 사육제'는 동물들의 이미지를 묘사한 14곡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당나귀',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백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아



임인수

## 곡성 서산사 동종·연운당 고문서

### 전남도 문화재 됐다



곡성군은 곡성을 서산사의 동종과 석곡면 연운당의 고문서가 나란히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서산사 동종은 조선후기인 1730년에 제조된 것으로 조선 후기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이 잘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운당 고문서는 미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호적 문서, 소지류, 일기류 등 문서 177점으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제도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두 문화재의 원형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jkim@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종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